‘환경·생명·평화’ 가치와 정신, 이웃에 전합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창립 15주년 기념 17일 후원의 날 행사
무등산 원효사에서 ‘무소유 나눔 페스타’ ‘사찰음식 맛데이’ 등

광주·전남 환경운동에 앞장서 온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불교환경연대)가 창립 15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생명평화를 애호하는 불교 시민단체로 창립한 불교환경연대는 지역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물론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불교환경연대는 오는 17일 무등산 원효사 잔디마당에서 창립 15주년 기념 후원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

오후 3시 30분 시작되는 행사에서는 무소유 나눔 장터인 ‘무소유 나눔 페스타’가 열리고, 앞서 오후 3시부터는 식전 행사로 천도스님이 함께 하는 환경명상절 108배가 진행된다,

특히 이날 창립 기념식이 끝난 오후 5시부터는 사찰음식 전문가인 정관 스님의 ‘사찰음식 맛데이’가 열린다. 행사 참가는 사찰음식 공양금으로 1인 3만원의 티켓을 구매하면 가능하다.

백양사 천진암 암주인 정관스님은 지난해 3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2022’에서 ‘올해의 공로상’을 수상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음식명장’으로 지정됐다.

특히 사찰음식은 제철 싱싱한 재료를 사용하고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아 건강을 생각하며 자연을 담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불교환경연대의 활동과 이어진다.

지난 2008년 4월 18일 창립한 불교연대는 ‘자연과 조화로운 삶, 세상과 함께하는 삶’을 지향하며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데 앞장섰다.

어린시절부터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환경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생각에 부설기관으로 ‘청소년환경교육센터 나무숲’과 ‘녹색불교아카데미’를 운영해 왔다.

청소년환경교육센터 나무숲은 어린이생태학교, 자따마따(자연따라마음따라) 1박2일, 어린이담마스쿨(영어환경캠프), 청소년리더십캠프, 청소년자전거캠프, 청소년지리산마음캠프, 선재역사문화탐방(해외캠프) 등 1박2일 이상의 프로그램을 총 131차례 진행했다.

1년 과정으로 총 30회의 불교 및 환경 강의를 진행하는 녹색불교아카데미는 올해 3기째 진행중이다.

나무숲햇빛발전협동조합을 꾸려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로 역할을 하기 위해 햇빛발전소 건립을 추진중이다.

지역 환경문제 이슈에도 항상 함께 했다. 4대강 재자연화운동으로 영산강 승촌보에 버드나무숲을 조성해 관리하고 있으며,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과 함께 지역 원전인 한빛원전의 문제점 해결을 고민하는 등 탈핵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국립공원무등산지키기시민연대의 간사단체로 국립공원인 무등산을 보존해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 왔다.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도 귀기울여 왔다.

특히 지역 시민활동가들의 어려운 생계를 돕기 위해 광주공익활동가 자비의쌀 나누기 운동을 창립 때부터 현재까지 진행해 총 3만 6325kg의 쌀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전달했다.

매년 부처님오신날 시민사회단체 20곳을 선정해 10년 동안 부처님 생일떡을 전달하는 한편, 사회문제에 앞장서 심신이 지친 공익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쉼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매년 5·18이 돌아오면 망월동 구묘역에서 주먹밥나누기 활동을 13차례 진행했고 5·18민중항쟁 오월음악회를 만들어 추모의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2020년에는 후원금을 모아 광주시 남구 양림동 펭귄마을에 나무숲센터를 오픈했다.

불교환경연대 주최로 구례군 토지면의 연곡사에서 지난해 10월 열린 ‘어린이담마스쿨’에 참가한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 제공〉

센터 2층에는 불교환경연대 사무실이 있고 3층에는 청소년환경교육센터 나무숲, 수행교육관 그린담마홀이 있다. 나무숲센터 공간은 공유공간으로 365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무료로 대관이 가능하다.

옥상에는 텃밭을 가꾸고 에너지전환운동의 일환으로 태양광발전을 설치해 자체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등 친환경에너지 사용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환경과 생명평화의 가치와 정신을 이웃들에게 전할 뿐 아니라 불교계의 사회참여 저변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기후정의 탈핵학교’

광주환경운동연합, 참여자 모집

광주환경단체가 지역민을 대상으로 ‘기후정의 탈핵학교’ 강좌를 개최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기후정의 및 탈핵에 관심있는 지역민 50여명을 대상으로 화요환경강좌 ‘기후정의 탈핵학교’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후정의 탈핵학교’ 프로그램은 노후 원전 수명연장, 탈원전과 에너지요금, 방사성 오염수와 생활방사능 문제 등 탈핵에 관한 다양한 현안을 배우고,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에서 다양한 탈핵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의가 진행된다.

이 강좌는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4회로 진행된다. 강좌는 오후 7시부터 2시간 가량 이어진다.

13일 1강에서는 ‘탈핵으로 가는 월성원전’이라는 주제로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다음주 화요일인 오는 20일 열리는 2강에서는 박찬호 반핵의사회 운영위원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와 생활 방사능’이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3강과 4강은 ‘한전적자, 정말 탈원전 때문일까?’, ‘영광원전 수명연장 추진 현황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과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가 맡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검노린재나무잎’서 항 당뇨 성분 최초 발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진도서 채집…5월 국제학술지 게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검노린재나무잎〈사진〉에서 항 당뇨 성분을 최초로 발견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021년 8월 진도군에서 채집한 검노린재나무잎에서 항 당뇨 효능을 갖는 주요 성분을 최초 발굴·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검노린재나무는 노린재나무 속의 관속식물로 일반 노린재나무의 경우 전통적으로 매염제로 사용해왔지만, 검노린재나무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바가 없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2023년 ‘섬·연안 생물 유래 천연물 확보 및 정보 생산’ 연구과제를 통해 전남 섬·연안에 자생하는 식물 유래 추출물을 대상으로 주요 성분 및 생리활성 효능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검노린재나무잎 추출물이 단백질 당화(혈액 속 당이 단백질에 달라붙어 이들의 구조를 바꿔 기능을 저하하고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작용)를 억제하는 기능이 밝혀지면서 항 당뇨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단백질 당화는 노화를 촉진하고 당뇨병 합병증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 성분 분석을 통해 검노린재나무잎 추출물 속 ‘퀘르세틴 배당체’와 ‘엘라지탄닌’ 성분의 존재를 처음으로 발견했고, 이 성분들이 단백질 당화 과정의 중간 물질을 포집함으로써 항 당뇨 효능을 낸다는 사실을 질량분석법을 통해 밝혀냈다.

관련 연구 논문은 분석 화학 분야 국제저명 학술지인 ‘Journal of Pharmaceutical and Biomedical Analysis’에 올해 5월 게재됐으며, 향후 항 당뇨 소재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연구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최경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생물융합연구실장은 “앞으로도 섬·연안 생물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유용 정보 확보 및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모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취업성공패키지란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총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는 본격 취업준비에 앞서 상담과 직업평가,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으로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면 참여수당 15만원이 지급된다.

2단계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과 더불어 훈련을 연계시킨다. 취업코칭 프로그램인 ‘지피지기’를 통해 특화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훈련 수료시 최대 10만원의 지원금이 나온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중위소득 60% 이하)으로 월 50만원이 지급되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3단계는 취업자 직장적응 및 장기근속 격려 차원의 사후관리이자 미취업자에 대한 일자리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뤄진다. 취업에 성공할 경우 3개월 근속 30만원, 6개월 근속 40만원, 12개월 근속 80만원이 지급된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 주 30시간(중증 15시간)이상 일해야 지급 가능하다.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69세 이하 장애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나 고등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참여할 수 없다. 앞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경우 중단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거나 취(창)업일 1년 이후에 가능하다. 상시 모집하며 공단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역본부(062-448-1199)에 문의하면 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 남구 ‘2023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대상자 30일까지 모집

광주시 남구가 ‘2023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대상자를 모집한다.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든 산타가 12월 한겨울이 아닌 8월 한여름에 아이들을 찾아 선물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남구 대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사업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2017년 남구 차원에서도 지원하고 있다. 아이들이 원하는 소원을 적으면 산타로 변신한 남구청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직접 집으로 선물을 전달해 준다.

전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으로 이뤄지며 총 1060만원의 예산으로 한명당 20만원 가량이 지원된다. 중위소득 100% 이내인 초등학생이 대상이며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관과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자체 선발해 구청에 추천하는 방식이다.

남구는 오는 30일까지 프로그램 수혜자 52명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